15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베니스글라스판타지아 전시장을 찾은 노화중학교 학생들이 유리공예작품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와~너무 신기해요" 감탄 또 감탄

완도 노화중학생 38명 '글라스 판타지아' 등 광주 문화 나들이

광주일보 초청

"유리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예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해요. 평소 가까이서 구경할 수 없었던 문화를 흠뻑 맛보고 돌아갈 거에요."

15일 오후 1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문예회관 전시관. 삼삼오오 전시관에 들어선 섬마을 중학생 38명은 유리공예 작품을 보는 순간 '와~'하는 탄성을 쏟아냈다.

이날 전시관을 찾은 이들은 완도 노화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광주문예회관에서 전시중인 '글라스판타지아'와 시립미술관·국립광주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노화도는 완도군에서 남서쪽으로 14.5㎞ 정도 떨어진 섬으로, 면적 26.75㎢·2571가구·인구 5700명이 거주하는 섬마을이다. 노화도 주민들이 육지로 나오기 위해서는 30여분 배를 타야한다.

광주일보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탐방은 평소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섬 청소년들에게 체험 기회를 주고, 문화의 향기를 느끼면서 꿈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노화도 학생들은 베니스 전통 유리 공예작품전을 관람하면서 "너무나도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학생 19명·여학생 19명으로 구성된 38명의 학생들은 1층 전시관과 체험관에서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등 '추억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직접 손가락에 물을 묻혀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유리잔 연주체험과 15년 경력의 유리공예가 카티아(Katia)씨의 '랩프워킹(유리막대를 불로 녹여 동·식물 등 소형작품을 만드는 작업)' 시연 장면에서는 감탄사를 터트리기도 했다.

김영익(15)군은 "유리막대와 불을 이용해 만들어낸 원숭이 작품이 너무 신기해 구입했다"면서 "노화도로 가기 전 광주에 사는 누나에게 선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층 전시실에서 유리공예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관람한 김다영(15)양은 "유리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며 "동영상을 보다가 유리공예의 과학적 원리가 궁금해졌는데, 집에 돌아가 인터넷으로 꼭 찾아보겠다"며 활짝 웃었다.

학생들은 이날 광주시립미술관의 '빛 2010'전과 국립광주박물관의 '한국의 유물과 역사전'을 관람하고, 각종 체험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바쁜일정을 보냈다. 이들은 16일에는 광주 패밀리랜드에서 놀이기구 등을 타며 도시 아이들의 놀이문화도 만끽할 예정이다.

노화중학교 이현천(55) 교장은 "학생들이 선진문화와 현대 미술의 다양한 영역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내렸다 그쳤다 간지러운 장마

광주·전남지역은 16일 돌풍을 동반한 장맛비가 온 뒤 17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광주·전남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다"고 15일 예보했다. 17일까지 강수량은 20~60㎜. 특히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도 돌풍으로 인한 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흑산도·홍도는 16일 밤부터 강풍 특보·서해남부먼바다는 풍랑 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3.0m로 점차 높게 일겠으며, 짙은 안개가 끼고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예정이어서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비는 장마전선이 중부이북지방까지 북상함에 따라 17일 아침에 개겠고, 이날 오후에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므로 주말 나들이나 야외활동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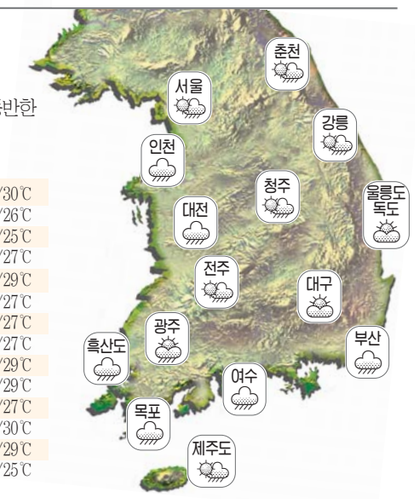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0분 / 해짐 19시 47분 — 달뜸 10시 26분 / 달짐 22시 32분

강풍·돌풍 주의

대체로 흐리고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오겠다.

광 주	흐리고가끔비	23/30℃
목 포	흐리고비	23/26℃
여 수	흐리고비	22/25℃
완 도	흐리고비	22/27℃
구 례	흐리고비	22/29℃
해 남	흐리고비	22/27℃
장 흥	흐리고비	22/27℃
고 흥	흐리고비	22/27℃
순 천	흐리고비	23/29℃
영 광	흐리고비	23/29℃
진 도	흐리고비	22/27℃
전 주	차차흐려져비	22/30℃
남 원	차차흐려져비	21/29℃
흑산도	흐리고비	22/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먼바다	남동~남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먼바다	남동~남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5~2.5m
먼바다	남동~남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먼바다	남동~남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매우높음

	밀물	썰물
목포	05:26 17:47	10:35 22:48
여수	12:19 --:--	06:01 18:18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날 씨						
최저/최고	24/30	24/32	23/32	23/32	24/33	24/32

"권력·토착·교육 3대비리 척결"

성영훈 광주지검장

"정의와 진실 추구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검찰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성영훈(50) 광주지검장은 15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명제 처럼 정의와 진실 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은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성 지검장은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해선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염두에 둔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집행 기준이 들쭉날쭉해선 안되지만, 부자와 서민 사이의 벌금 양형 등에 있어선 각각의 형편을 감안하는 것이 '실질적인 형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지검장은 "최근 '스폰서 검사' 등 일련의 사건으로 검찰의 자긍심이 손상됐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검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 구성원 모두는 '어깨가 아닌 영혼에 법복을 입고 있다'는 결연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항상 깨끗하고 삼가는 자세를 통해 권력형 비리와 토착비리, 교육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에도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법무부 검찰1과장 ▲고양지청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최경호기자 choice@

/사진=최현배기자 choi@

무안공항~김포공항 '에어택시' 운항 시작

무안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잇는 소형 항공기(에어택시)의 정기 운항이 시작됐다.

전남도는 15일 무안~김포 구간을 운항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중단에 따라 무안공항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매주 5일간 두 공항을 잇는 에어택시를 운항한다고 15일 밝혔다.

19인승 소형항공기인 에어택시는 매주 화~토요일 5일간 오전 8시30분에 김포를 출발하고 무안공항에서는 오후 5시30분 출발한다. 요금은 화·수·목요일의 경우 7만5000원, 금·토요일은 8만5천원이다.

그러나 에어택시 운항이 오는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항한 뒤 항공 수요를 고려해 지속적인 운항 여부 및 확대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F1대회의 관광객 수송을 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에 무안~김포노선 운항 재개 및 임시편 증편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 31.2%·광주는 28.5% 사교육비 감소율 전국 최고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지난해 처음 지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를 1년간 운영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학교의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2009년도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6%, 사교육 참여율은 14.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과 1년 뒤인 올 6월에 각각 학부모 설문조사를 해 1년간 사교육 실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19만9000원→13만7000원, 31.2%)이었으며 이어 충남(19만5000원→13만9000원, 28.7%), 광주(23만3000원→17만3000원, 25.8%), 충북(15만6000원→12만5000원, 24.7%), 부산(25만6000원→19만4000원, 24.2%)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감소율이 7.1%(38만1000원→35만4000원)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부가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지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 광주 15·전남 21개교 등 전국 457개교(초등 160, 중 142, 고 155) 학부모 3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나온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병원 노사협상 타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적용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전남대병원 노사협상이 파업 돌입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남대병원은 15일 임금 1.26% 인상, 최대 1만 시간(전임자 5명)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노조와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14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전 7시30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2개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